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대통령 연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의 틀을 통하여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된 평화 번영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건의해주신 내용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1기 민주평통 자문회의가 출범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민주평통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해외 자문위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신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국내외에서 1만5천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민적 대열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20여 년간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국론을 결집하고 청소년들의 통일관을 세우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상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민주평통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항구적인 재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 평화변영정책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변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정립하며,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6.25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동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해서 북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틀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당국간의 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

여 뜨거운 동포애를 나누었습니다. 금강산에 이어 평양관광도 시작되었습니다. 남북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를 비롯한 남북간의 4대 경험합의서도 발효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인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과 북한의 노동자가 한솥밥을 먹으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면 남북간의 신뢰는 한층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북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대화도 협상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힘있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남북문제는 결코 정치적 이해에 따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통일, 외교, 안보문제에 관한 냉전시대의 흑백논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산가족문제도 하루속히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여 민족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남북분단의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번영정책’ 추진의 주역입니다. 대북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각계 각층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통일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통일의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대화와 토론 자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평통의 다양한 경륜과 경험이 사회의 갈등해소에 매우 유의할 것

더욱이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권력기관들의 강압적인 조정장치도 없습니다. 힘으로 누르던 시대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법과 원칙의 기본입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사회에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평통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남대화’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참여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시장개혁과 사회문화개혁,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전략으로 삼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8년째 묶여있는 1만 달러 시대의 멍애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려갑시다.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절반으로 줄여갑시다. 그리하여 평화

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다시 한 번 자문위원 여러분의 큰 역할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오신 자문위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